

The Effects of Educational Psychology Classes in Enhancement of Teaching Competence, Subject-Specific Competence and Differences in Types of Courses¹⁾

Choi, Mi-Jung (Chosun Nursing College, Associate Professor)
Choi, Byung-Yeo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Lee, Kyung-Hwa²⁾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

This study verified whether educational psychology courses a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teaching competence and subject-specific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addition,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effects of educational psychology classes differed according to school types, i.e. elementary and secondary pre-service teachers, college, and general university students. To this end, pre-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for students who took the educational psychology courses for one semester.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educational psychology courses were effective in enhancing students' teaching competence and subject-specific competenc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ool types.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eaching competencies and the subject-specific competencies, which means that teaching educational psychology can cultivate both competenc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psychology courses should be recognized in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Key Words : Teacher competence, subject-specific competence, educational psychology

-
-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IA5C2A04081197).
2) Corresponding Author: Lee, Kyung-Hwa,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Korea, 06978 / E-mail: khlee@ssu.ac.kr

교육심리학 수업이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함양에 미치는 효과와 수강 유형별 차이¹⁾

최미정 (조선간호대학교, 부교수)
최병연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이경화²⁾ (승실대학교, 교수)

< 요약 >

본 연구는 교육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직과정 및 일반대학교 교육관련 전공에서 교육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 수강 유형별로 역량 향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수강 유형이 다른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 학기 수업 전, 후에 교직공통역량검사와 교육심리 세부역량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심리학 수업은 학생들의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강 유형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강 목적과 무관하게 교육심리학 강좌는 학생들의 교직역량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간에는 대부분 적절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육심리학 수업을 통해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을 모두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교육심리학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여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주요어 : 교사역량, 교직공통역량, 교육심리학, 교육심리 세부역량

1)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IA5C2A04081197).

2) 교신저자: 이경화, 교수,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승실대학교 / E-mail: khlee@ssu.ac.kr

논문투고일자: 2020. 9. 30 / 심사일자: 2020. 11. 16 / 게재확정일자: 2020. 12. 4

I. 서론

정보화·세계화 시대에는 지식과 과학기술이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은 교육을 통한 창의적이고 탁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어떤 환경에서 누가 가르칠 것인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목표로 창의인성교육정책을 마련하였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융합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교사교육에 열심을 다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교사에게 연수를 통해 역량을 기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예비교사의 육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에 필요한 좋은 수업은 교사가 학생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공되는 다양한 매체와 교수-학습 방법을 교과 특성에 맞추어 적용하여 수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일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러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식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교직과정이며, 그중 이와 관련된 교직과목이 교육심리학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교사에게는 교수역량이 요구되며, 이러한 역량은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초점을 두어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Park(1999)에 따르면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 영역과 내용은 수업 활동에 관한 업무,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업무, 연구 개발 업무, 연수 활동에 관한 업무, 학교 운영에 대한 업무, 대외 행사에 참여하는 업무, 대외 협력 관련된 업무, 행정 사무에 관련된 업무, 수업 연구, 현장 연구 등과 같이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육심리학 영역에 속하는 수업 활동에 관한 업무와 학생 지도에 관한 업무이다.

한편 Chung et al.(2010)에 따르면, 교사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사 역량은 교수-학습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교사 리더십, 교육관·교직원리·봉사정신·인문학적 소양을 포함하는 교직소양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이해 및 재구성 능력, 고등사고 기능과 교육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 적용능력, 학습자 특성 및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적용능력, 학습자 이해 및 상담능력, 초·중등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교육법 및 행정업무 수행능력, 특기적성 개발과 지도 역량, 이론과 실제의 조화역량, 담당교과 내용 전문성, 융복합/통섭적 지식, 창의인성, 학교 및 자원의 연계능력, 다문화교육 역량, 세계화 교육역량, 생태학적 교육역량 등이 필요하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Kim et al.(2011)은 한국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학생 이해, 교과 수업과 평가 이해, 교육과정 이

해, 학급운영 이해, 학교조직 이해, 지역자원과 공교육체제 이해, 현대사회 이해력 등의 이해 영역. 정보관리, 연구 능력, 기획 능력과 관련된 분석 및 조직 영역,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리더십을 관계형성 영역 등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Jo et al.(2003)은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교직적성·인성을 검사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성공적인 교사로서 교수능력, 생활지도, 연구능력, 창의성, 소명감, 도덕성 등과 같은 6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수업, 교과지도, 학생지도, 학급경영 등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예비교사 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를 보면, 교사양성을 대학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학생들은 입학 당시에서부터 교사가 되고자 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에서 교원양성과정에서 참여해서 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경우, 일반대학의 교육관련 학과에서 교직수업을 듣는 경우는 목표 자체에서의 차이로 인해 수업의 효과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하게 되었을 때 수업의 목표달성, 수업효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 대한 심리적 이해와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교육심리학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강 유형이 다를 경우에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에 있어서 수업의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심리학 수업은 수강 유형에 따라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육심리학 수업은 교육대학교, 일반대학교의 교사양성과정, 일반대학교의 교육학 관련 전공 수강생들의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향상에 효과적인가?

연구문제 2. 교육심리학 수강유형에 따라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역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각 사람들이 맡게 되는 역할이란 사회, 문화, 역사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는데, 특정 지위의 사람이 그 지위에 맞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행동방식을 의미하는데, 역할수행이란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이에 적합하게 업무를 진행해나가는 것이다(Jin, 2018). 교사들의 경우에도 교사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역할수행에 필요한 역량(competency)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있는데, 이중 교사의 심리적 역할에 대해 Riddle & Wartenberg(1951)는 사회 가치, 규범, 생활양식을 전달하는 사회대표자로서의 역할, 학생의 행동 발달을 평가하거나 교과 성적을 평가하는 판단자로서의 역할,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자원으로서의 역할, 학습활동을 조력하는 학습 조력자로서의 역할, 갈등과 대립의 시비를 가리는 심판관으로서의 역할, 사회생활을 적응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형성시키는 훈육자로서의 역할, 모범적인 행동, 태도, 사고방식을 전수하는 동일시 대상자로서의 역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해소하는 불안 제거자로서의 역할, 학생의 자신감을 형성시키는 자아 옹호자로서의 역할, 집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응집시키는 집단 옹호자로서의 역할, 부모처럼 보살피 주는 부모 대리자로서의 역할, 친구나 성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시켜 주는 적대감정 표적의 역할, 이외 친구, 애정의 대상자로서의 역할 등이 있다고 하였다(as cited in Ki, 2002).

Kim et al.(1994)은 교사의 역할을 사실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역할, 학생들의 사고력을 길러주는 역할, 행동의 귀감이나 인격의 감화자로서의 역할, 자성예언자로서의 역할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Kang et al.(2006)은 교사의 역할을 학습 영역의 역할로는 학생 지도자, 학습 경영자와, 학교 영역에서의 역할을 학급 경영 참여, 행사 교육, 직장인으로 구분하였고, 사회 영역의 역할로는 사회모범, 변화 촉진, 교권 신장, 연구자로 제시하였다. Lee & Huh(2014)는 교사의 역할 중 학습지도 측면에서 교육과정 설계자, 수업 운영자, 학습 동기 유발자, 학습 촉진자, 학생 평가자와 생활지도 측면에서 학생 생활지도자, 학생의 건강·안전 관리자, 윤리적 모범자로 역할을 보았고, 학급 경영자 측면에서 공정성 유지 및 레포 형성, 교실 환경 관리자를 제시하였다.

Lee(2017)는 4차 산업혁명시대 및 AI 시대라고 불리는 상황에서 이제 교육환경은 매우 달라지고 있으므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역할은 수업계획 및 실행자로서, 학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교사는 수업방식의 적용, 교수자료 활용, 시간 관리 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학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사는 계획 및 시행된 수업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학습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학습을 유발하고 있는지 관찰하여야 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수업형태 내에서도 학생 각각의

이해 수준이 다르므로 교사는 개인별 혹은 모둠별 이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질문과 답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려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사역량 함양을 위한 준비도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예비교사의 교직 수행과 교사역할 관련 역량

McClelland(1973)는 역량(competency)이란 업무 성과와 관련 있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라고 정의하였다. Jacobs(2002)는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완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스킬과 능력이 역량이며, 이는 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행동 특성으로 관찰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Spencer & Spencer(1993)는 역량의 요소로 동기, 특징, 자아개념, 지식, 기술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역량 가운데서도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을 살펴 보기 위하여 예비교사의 능력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6)는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교사의 교직 사명감, 윤리의식, 인성, 둘째로 학생들의 학습, 복지에 대한 헌신, 셋째로 학생의 학습·발달에 대한 이해, 넷째로 교과에 관한 전문 지식, 다섯째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여섯째로 수업의 효과적인 계획·운영, 일곱째로 교사의 학습 모니터링, 여덟째로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 문화 조성, 아홉째, 교사의 전문성 개발 등이 있다. 한편 교수역량이란 교육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지식, 기술, 태도의 총합이다(Mun, 2015). 또한 Baek et al.(2007)은 교수역량을 교과 교육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이론적, 실천적 교수역량의 총체로 보았다. 즉, 이론적 교수역량에는 교과지식, 학습자와 학습, 교수 설계·개발, 교수학습 환경, 평가를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실천적 교수역량에는 계획, 조직, 의사소통, 상호작용, 조정, 성의, 열의로 구분하였다. Yoon & Shin(2006)은 그동안 교사의 역량이 전문성을 토대로 한 전문직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교사가 가져야 할 능력으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연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Kang(2004)은 중등교사 역량 모델 연구를 통해 중등교사의 담임교사 직무를 교과지도, 학급경영, 교무분장업무로 구분하였고, 이를 위한 역량을 전문적인 교과내용, 전문적인 교수기술, 학생 육성, 정보 및 조직관리, 팀워크, 기본직무태도를 제시하였다. Roh & Choi(2004)는 교수역량이란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육활동에 관련되고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로 보았다. Jung & Kim(2005)은 초등 신입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문화적응, 수업기술, 아동지도, 업무기술이 있다고 하였다. Hwang & Baek(2008)은 교과지식,

학습자와 학습, 교수·학습의 환경, 교수설계와 개발, 평가의 이론적 교수와 계획, 조직, 학생과의 상호작용, 의사소통능력, 교수 학습 환경 조성, 열의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시하였다.

Kim & Lee(2009)는 교사역량은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수업 과정, 자원관리, 학습 환경의 교수활동이 안정감 있게 실행하게 하는 기술, 지식, 태도의 능력으로 보았고, Bellanca & Brandt(2010)는 21세기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의 핵심은 교사의 역할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Kim et al.(2012)은 학생 이해, 교육환경 이해, 교육과정 구상 및 실행 역량을 교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Lee et al.(2015)은 초등 교사의 핵심역량으로 교과 내용의 전문성, 실행능력, 교육 태도를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Kim(2018)은 예비교사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패러다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미래교사들이 갖추어야할 역량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3. 교사역할 및 교직수행에서 교육심리학의 역할과 중요성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직 교과목과 전공 기본이수과목을 교원양성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Park(2007)은 중등교원양성기관에서 운영 중인 교직교육과정의 요소별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교육학은 교육이 지향하는 비전, 목적, 가치와 교육이 기초로 하고 있는 철학, 역사적 배경, 그리고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 정치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학교교육과 학습자의 발달 및 학습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교과내용학은 학문의 구조와 지식을 포함하는 교과교육과정으로 학문의 핵심개념과 그 개념들의 관계 및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형성해야 한다. 셋째, 교과교육학은 교과, 학습자, 교수에 대한 통합된 지식의 학문으로 교수학적 내용 지식이 중요하다. 즉, 교과의 주제, 문제가 학습자의 관심, 능력에 따라 어떻게 조직되고 표현되어 수업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지식이다. 넷째, 수업실습은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하는 능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실습은 사범대학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는데 이러한 교직과정은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학,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수업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교육심리학은 필수 교직과목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효과적인 수업으로 예비교사 양성과 현직교사 재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Kim, 2010). Wittrock(1992)은 독자적 학문인 교육심리학이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고유한 탐구 영역과 방법론이 있다고 하여 교육심리학을 독립적인 학문이라고 하였다. Snowman et al.(2009)은 교육심리학은 심리학적 이론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학문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Poulou(2005)는 교육심리학 수업이 예비교사 양성 및 현직교사 전문성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Chizhik & Chizhik(2003)는 교육심리학자들이 교사교육을 통해 교육심리학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Snowman(1997)은 교육심리학 교재의 주제는 수업방법, 동기, 측정 및 평가, 정보처리, 학급 관리, 개인차, 조작적 조건화, 표준화 검사, 인지발달, 문화 및 SES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육심리학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심리 수업에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을 통해 예비교사가 요구되는 역량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4. 교사역할 교육·사범대학과 일반대학에서의 교사양성 문제

교육·사범대학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은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일반교육학, 교육실습 등을 포함하고 이들의 관계가 서로 상호 연결되고 통합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Han, 1997). 그리고 Kim & Lee(2006)는 사범대학의 교사양성 과정의 목표는 예비교사의 소양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있으므로, 교육과정에는 교육학과 교육실습을 포함하는 교직과 교양, 전공, 일반 선택으로 과목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전공은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으로 구분한다고 보았다. 일반교육학은 교사의 지식, 신념 형성을 위한 교육의 기초적인 이론으로 교수 및 학습 방법이 포함되며 학습자에 대한 지식이 있다. Chang(2002) 역시 일반교육학을 예비교사가 교육을 실천하는 학문뿐 아니라 교육현상을 이해하는 기초학문으로서 교과교육학의 기초로 보았다.

한편 일반대학에서 실시되는 교직과정은 교직이론, 교과교육 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Shin et al., 2011). 일반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직과목은 전문적인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과는 달리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Chung, 2009), Park(2005)은 일반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강만족도가 보통에 머물러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Park & Cho(2005)는 일반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고 불만족감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직과목의 수업이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학문중심적이고 이론적이며 일방적인 방식과 부족한 수업시수, 그리고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Shin et al., 2011).

마찬가지로 Park(2005)은 교직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 시청각 매체 이용, 다양한 평가방식, 적절한 수강인원, 다양한 교육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Park & Cho(2005)는 예비교사들의 교직인식 조사에서 대부분 대학에서 진행되는 교직과정에 불만족하며, 교직과목에 해당하는 수업시수의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통해

교직 과목의 영역을 확대하고 깊은 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Chung et al.(2011)은 교원양성 교육과정 요구분석에서 교육내용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교육학 과목, 차별화된 교수방법, 내용중심 및 현장중심의 수업,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교육학 수업 등을 필요로 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해볼 때, 이제는 교사양성을 위한 수업은 예비교사들이 향후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역량함양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일반대학교의 교육관련 전공학생, 전라도 지역의 교육대학교와 일반대학교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교직과목 중에서 교육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39명(35.5%), 여자 71명(64.5%)이고, 학년은 2학년 103명(93.6%), 4학년 7명(6.4%)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구성 (N=110)

변인	항목	N(%)
성	남자	39 (35.5)
	여자	71 (64.5)
학교	교육대학교(1대학)	75 (68.2)
	일반대학교 교직과정(2대학)	13 (11.8)
	일반대학교 교육관련 전공(3대학)	22 (20.0)
학년	2	103 (93.6)
	4	7 (6.4)
전공	인문사회계열	3 (2.7)
	사회계열	21 (19.1)
	자연계열	13 (11.8)
	사범계열	73 (66.4)
수강구분	교직	88 (80.0)
	교육학 관련 (평생교육, 교과교육)	16 (14.5)
	교양 및 선택	6 (5.5)

2. 측정도구

가. 교직 공통역량 검사

본 연구에서 교직 공통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2015)가 교원양성과정 학생들을 위하여 개발한 교직역량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수업능력,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지속적 자기개발,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을 측정하도록 구성된 검사이다. 교직 공통역량 검사는 하위 요인별로 수업능력 13문항,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13문항, 지속적 자기개발 13문항,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 13문항으로 총 52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전체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830로서 신뢰할 만한 도구라 할 수 있으며, 하위요인은 .495~.744였다. 본 검사의 세부문항 구성과 신뢰도(Cronbach α)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교직 공통역량 검사 문항구성 및 신뢰도

영역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교직 공통역량	수업능력	13	1~13	.744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13	14~26	.713
	지속적 자기개발	13	27~39	.754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	13	40~52	.495
계			52	.830

나. 교육심리 세부역량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교육심리 세부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2015)가 개발한 교직세부역량검사 중에서 교육심리영역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교육심리 관련 지식, 동기, 수행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도록 구성된 검사이다. 교육심리 세부역량 검사는 하위요인별로 지식 4문항, 동기 4문항, 수행 4문항으로 12문항과 문제해결력 9문항으로 총 21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의 검사이다. 전체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는 .935로서 매우 신뢰할 만한 도구라 할 수 있으며, 하위요인은 .895~.710이었다. 본 검사의 세부문항 구성과 신뢰도(Cronbach α)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교육심리 세부역량 검사 문항구성 및 신뢰도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교육심리 세부역량	지식, 동기, 수행	12	1~12	.885	
	지식, 동기, 수행 세부역량	지식	4	1~4	.710
		동기	4	5~8	.782
		수행	4	9~12	.808
		문제해결력	9	13~21	.895
	문제해결력 세부역량	문제상황 1	3	13~15	.700
		문제상황 2	3	16~18	.764
		문제상황 3	3	19~21	.741
	계			21	

3.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대학에서 교직과목 중에서 교육심리학 수업이 학생들의 교직역량을 함양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강좌의 수강유형에 따라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심리학 과목이 교육대학교, 일반대학교의 교사양성과정과 교육관련 전공 수강생의 교직 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에서의 효과와 수강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과 전라도 지역의 교육대학교를 1대학으로, 일반대학교의 교사양성과정을 2대학으로, 그리고 일반대학교의 교육관련 전공을 3대학으로 하여, 각 대학에서 2019년 2학기에 교육심리학 수업을 듣는 수강생 총 1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심리학 수업은 세 대학교에서 동일한 교재로 15주차 교직수업을 유사하게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세 집단 각각에서 교육심리학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의 차이 검증을 두 독립 집단 t-test를 실시하여 확인하였으며, 수강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집단 간 차이 검증으로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 .05$ 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교육심리학 수업이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함양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교(1대학), 일반대학교의 교직과정(2대학) 및 교육관련 전공(3대학)에 따라 교육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유형이 다르므로, 세 집단 각각에서 교육심리학 수업이 학생들의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을 함양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각 집단마다 교육심리학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한 학기가 마무리될 무렵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사후 간의 차이를 두 독립집단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각 대학에서의 교육심리학 수업의 효과는 <표 4>, <표 5>, <표 6>과 같다.

첫째, 1대학에서 실시한 교육심리학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업 전, 후에 실시한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검사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1대학의 수업효과: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사전-사후차이

교직 공통역량	검사	n	M	SD	t	p	
교직 공통역량	수업능력	사전	75	33.32	5.27	2.600	.011
		사후	75	35.49	6.01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사전	75	33.44	6.27	6.328	.000
		사후	75	38.65	5.13		
	지속적 자기개발	사전	75	50.56	5.28	.850	.398
		사후	75	49.77	6.01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	사전	75	42.51	4.48	1.073	.287	
	사후	75	43.31	4.67			
교직공통 역량전체	사전	75	159.83	14.93	3.238	.002	
	사후	75	167.23	14.61			
교육심리 세부역량	지식	사전	75	9.76	2.20	6.141	.000
		사후	75	11.87	2.06		
	동기	사전	75	13.08	2.29	.450	.654
		사후	75	13.24	2.13		
	수행	사전	75	8.59	2.61	4.697	.000
		사후	75	10.63	2.80		
	문제상황 해결	사전	75	22.52	4.79	4.662	.000
		사후	75	26.07	5.04		
교육심리 세부역량전체	사전	75	53.95	9.82	5.003	.000	
	사후	75	61.80	10.18			

위의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대학에서 실시한 교육심리학 수업은 교직공통역량 전체와 교육심리 세부역량 전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그리고 교직공

통역량의 수업능력과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요인에서도 수업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의 평균이 높았으며, 이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이는 교육심리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능력과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과 관련하여 지식이 형성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향후 교직활동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 자기개발과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에서는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교육심리 세부역량에서도 전체 점수에서는 사전보다 사후검사에서 평균이 높았고, 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하위요인 동기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p > .05$), 교육심리학 관련 지식($p < .01$), 교육심리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교육문제를 수행함($p < .01$), 그리고 교육심리적 측면에서 실제 문제상황의 해결($p < .01$) 등의 역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수업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1대학인 교육대학교에서 수행한 교육심리학 수업은 학생들의 교직역량을 함양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된 수업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대학에서 실시한 교육심리학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업 전, 후에 실시한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검사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2대학의 수업효과: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사전-사후차이

교직 공통역량	검사	<i>n</i>	<i>M</i>	<i>SD</i>	<i>t</i>	<i>p</i>	
교직 공통역량	수업능력	사전	13	31.54	8.15	4.366	.001
		사후	13	37.38	6.67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사전	13	34.31	4.31	2.379	.035
		사후	13	37.85	4.90		
	지속적 자기개발	사전	13	46.62	4.70	1.705	.114
		사후	13	50.00	4.92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	사전	13	39.62	3.48	1.870	.086	
	사후	13	41.54	3.18			
교직공통 역량전체	사전	13	152.08	13.09	3.265	.007	
	사후	13	166.77	15.96			
교육심리 세부역량	지식	사전	13	7.77	1.79	9.388	.000
		사후	13	12.23	1.79		
	동기	사전	13	13.46	1.81	1.146	.274
		사후	13	12.69	1.93		
	수행	사전	13	7.23	2.39	4.324	.001
		사후	13	9.85	2.67		
	문제상황 해결	사전	13	22.31	6.63	2.245	.044
		사후	13	25.62	4.77		
교육심리 세부역량전체	사전	13	50.77	10.28	4.275	.001	
	사후	13	60.38	9.70			

위의 <표 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2대학에서 실시한 교육심리학 수업의 효과는 교직공통 역량전체에서 사전검사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 점수가 높아졌고, 이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하위요인인 지속적 자기개발과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에서는 실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수업능력($p<.01$),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교육심리학 수업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교육심리 세부역량에서도 사전검사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 점수가 높아졌고, 이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하위요인 동기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식($p<.01$), 수행($p<.05$)과 문제상황 해결($p<.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수업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교육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일반대학교의 교직과정 학생들은 교육심리학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으며, 교육심리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수행하는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3대학에서 실시한 교육심리학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업 전, 후에 실시한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검사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3대학의 수업효과: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사전-사후차이

교직 공통역량		검사	<i>n</i>	<i>M</i>	<i>SD</i>	<i>t</i>	<i>p</i>
교직 공통역량	수업능력	사전	22	34.41	5.08	3.002	.007
		사후	22	37.23	4.67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사전	22	35.45	6.52	3.659	.001
		사후	22	40.59	4.44		
	지속적 자기개발	사전	22	48.00	6.00	2.521	.020
		사후	22	50.32	5.74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	사전	22	39.50	4.48	1.229	.233	
	사후	22	40.50	4.60			
교직공통 역량전체		사전	22	157.36	16.30	4.262	.000
		사후	22	168.64	13.94		
교육심리 세부역량	지식	사전	22	9.82	2.11	6.272	.000
		사후	22	12.64	1.43		
	동기	사전	22	13.32	2.25	0.129	.898
		사후	22	13.27	2.80		
	수행	사전	22	9.00	2.49	6.787	.000
		사후	22	12.09	1.66		
	문제상황 해결	사전	22	21.91	5.68	6.602	.000
		사후	22	27.50	4.18		
교육심리 세부역량전체		사전	22	54.05	10.89	8.024	.000
		사후	22	65.50	8.61		

위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3대학에서 실시한 교육심리수업의 효과 또한 확인되었다. 즉, 교직공통 역량전체 점수와 교육심리학 세부역량 전체 점수에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이 높았고, 이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하위요인의 경우에도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에서는 실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 > .05$), 그 외에 수업능력,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지속적인 자기개발 역량은 $p < .05$ 수준에서 사전점수와 사후 검사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교육심리학 수업은 학생들의 교직공통역량을 함양하기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교육심리 세부역량에서도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평균이 높았고, 그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위요인 동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식은 ($p < .01$), 수행 ($p < .05$), 문제상황 해결 ($p < .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수업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3대학, 즉 일반대학의 교육관련 전공에서 교육심리학을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수강 유형에 비해서 교직공통역량에서 지속적인 자기개발 역량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교육심리 세부역량에서도 동기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향상이 나타나서 교육심리학을 수강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심리학에서의 이론과 내용을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실제 교육적 문제해결에 학습한 교육심리학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 교육심리학 수강 유형별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비교

가.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비교: 사전검사

본 연구에서는 세 대학교에서의 교육심리학 강좌 수강 유형에 따라 수업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수업 전에 세 집단 간에 교직역량에 있어서 동질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로 세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으로 일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수업 유형별 사전 교직공통 역량과 사전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수강 유형별 사전 교직공통 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차이

	구분	<i>n</i>	<i>M</i>	<i>SD</i>	<i>F</i>	<i>p</i>
사전 교직공통 역량 전체	1	75	159.83	14.93	1.543	.218
	2	13	152.08	13.09		
	3	22	157.36	16.30		

		1	75	33.32	5.27		
	사전	2	13	31.54	8.15	1.061	.350
	수업능력	3	22	34.41	5.08		
	사전	1	75	33.44	6.27		
	생활지도	2	13	34.31	4.31	.943	.393
	및	3	22	35.45	6.52		
교직공통	학급경영	1	75	50.56	5.28		
역량-	사전	2	13	46.62	4.70	4.188	.018
하위요인	지속적	3	22	48.00	6.00		(1>2)
	자기개발	1	75	42.51	4.48		
	사전	2	13	39.62	3.48	5.470	.005
	교직품성	3	22	39.50	4.48		(1>2)
	및	1	75	53.95	9.82		
	교직소양	2	13	50.77	10.28	.577	.563
사전 교육심리	세부역량	3	22	54.05	10.89		
		1	75	9.76	2.20		
	사전 지식	2	13	7.77	1.79	5.040	.008
		3	22	9.82	2.11		(1>2)
		1	75	13.08	2.29		
	사전 동기	2	13	13.46	1.81	.219	.803
		3	22	13.32	2.25		
사전 교육심리		1	75	8.59	2.61		
세부역량	사전 수행	2	13	7.23	2.39	2.056	.133
		3	22	9.00	2.49		
	사전	1	75	22.52	4.79		
	문제상황	2	13	22.31	6.63	.118	.889
	해결	3	22	21.91	5.68		

* 1: 교육대학교 2: 일반대학 교직 3: 교육 관련학과

위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교직역량검사의 사전검사에서는 교직공통역량의 지속적 자기개발과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을 제외하고, 교육심리 세부역량에서는 지식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서 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p>.05$), 세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나.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에서의 수업효과 비교: 사후검사

본 연구에서는 교육심리학 수업 유형별로 대학생들의 교직공통 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에 있어서 수업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학기 수업이 끝난 후에 실시한 사후검사 점수를 사용하여 세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으로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수업 유형별 사후 교직공통 역량과 사후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수강 유형별 사후 교직공통 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차이

	구분	<i>n</i>	<i>M</i>	<i>SD</i>	<i>F</i>	<i>p</i>	
사후 교직공통 역량	1	75	167.23	14.61	.095	.909	
	2	13	166.77	15.96			
	3	22	168.64	13.94			
사후 교직공통 역량	사후 수업능력	1	75	35.49	1.123	.329	
		2	13	37.38			
		3	22	37.23			
	사후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1	75	38.65	1.650	.197	
		2	13	37.85			
		3	22	40.59			
	사후 교직공통 역량	사후 지속적 자기개발	1	75	49.77	0.076	.927
			2	13	50.00		
			3	22	50.32		
사후 교직공통 역량	사후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	1	75	43.31	3.654	.029 (1>3)	
		2	13	41.54			
		3	22	40.50			
사후 교육심리 세부역량	1	75	61.80	10.18	1.503	.227	
	2	13	60.38	9.70			
	3	22	65.50	8.61			
사후 교육심리 세부역량	사후 지식	1	75	11.87	1.424	.245	
		2	13	12.23			
		3	22	12.64			
	사후 교육심리 세부역량	사후 동기	1	75	13.24	0.349	.706
			2	13	12.69		
			3	22	13.27		
	사후 교육심리 세부역량	사후 수행	1	75	10.63	3.738	.027 (2<3)
			2	13	9.85		
			3	22	12.09		
사후 교육심리 세부역량	사후 문제상황 해결	1	75	26.07	.888	.414	
		2	13	25.62			
		3	22	27.50			

* 1: 교육대학교 2: 일반대학 교직 3: 교육 관련학과

<표 8>에서와 같이, 사후검사 결과에서 수업 유형을 달리한 세 집단 간에 교직 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전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또한 하위요인에 있어서도 교직공통역량의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수행에서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05$), 그 외의 요인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대학교와 일반대학교에서 교직과정으로 교육심리학 강좌를 수강한 경우이나, 일반대학교의 교육전공에서 교육심리학을 수강한 경우나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수강 유형이라 할지라도 교육심리학 강좌는 학생들의

교직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에 있어서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일반대학교의 교육관련 전공 학생들보다 더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경우에는 수행에 있어서 오히려 일반대학교의 교육관련 전공학생들이 교육대학교나 일반대학교 교직과정 학생들보다 더 향상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심리학 수업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수업과 학급경영과 관련된 실제 학교교육분야에서 업무수행관련 역량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현상에 대해서 교육심리학에서의 이론과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역량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교과목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다. 수강 유형별 교직역량의 향상 효과 비교: 사후-사전검사의 차이

수강 유형별로 교육심리학 강좌 수강 후에 역량 향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여, 사후검사와 사전검사의 차이점수를 사용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 간 교직역량에 있어서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교직공통역량에서의 차이는 <표 9>에, 교육심리 세부역량에서의 차이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 수강 유형별 교직공통 역량 사후-사전 차이

	구분	n	사후-사전	SD	F	p
교직공통 역량	수업능력	1	2.17	7.24	1.754	.178
		2	5.85	4.83		
		3	2.82	4.40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1	5.21	7.13	.337	.715
		2	3.54	5.36		
		3	5.14	6.58		
	지속적 자기개발	1	.790	8.01	2.806	.065
		2	3.38	7.16		
		3	2.32	4.31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	1	.800	6.46	.210	.811	
	2	1.92	3.71			
	3	1.00	3.82			
교직공통역량전체	1	7.40	19.79	1.099	.337	
	2	14.69	16.22			
	3	12.64	22.00			

* 1: 교육대학교 2: 일반대학 교직 3: 교육 관련학과

<표 9>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교직공통 역량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런데 사전검사와 비교했을 때는 세 집단 모두 향상이 있었으나, 그 향상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떤 수강 유형이건 교육심리학 강좌는 학생들의 교직공통역량, 즉 수업능력, 학생지도 및 학급경영, 지속적 자기개발 및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다음 <표 10>에는 수강 유형별로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향상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하위요인인 지식에 있어서만 대학2와 대학1 간에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p<.05$), 그 외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p>.05$). 이와 같은 결과에서 일반대학교 교직과정에서 교육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교육심리학 이론과 방법에 대한 지식에서 향상이 더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심리학 수강 후에 교육심리 세부역량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수강 유형별 교육심리 세부역량 사후-사전 차이

	구분	<i>n</i>	사후-사전	<i>SD</i>	<i>F</i>	<i>p</i>
지식	1	75	2.11	2.97	4.365	.015 (1<2)
	2	13	4.46	1.71		
	3	22	2.82	2.11		
동기	1	75	.16	3.08	.622	.539
	2	13	.77	2.42		
	3	22	.05	1.65		
교육심리 세부역량 수행	1	75	2.04	3.76	.896	.411
	2	13	2.62	2.18		
	3	22	3.09	2.14		
문제해결 상황	1	75	3.55	6.59	1.057	.351
	2	13	3.31	5.31		
	3	22	5.59	3.97		
교육심리 세부역량전체	1	75	7.85	13.60	.802	.451
	2	13	9.62	8.11		
	3	22	12.64	22		

* 1: 교육대학교 2: 일반대학 교직 3: 교육 관련학과

3.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간의 상관관계

교직공통역량 하위요인인 수업능력,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지속적 자기개발,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하위요인인 지식, 동기, 수행, 문제해결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교직공통역량 수업능력	1											
2.교직공통역량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535**	1										
3.교직공통역량 지속적 자기개발	.184	.226*	1									
4.교직공통역량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	.136	.238*	.394**	1								
5.교육심리세부역량 지식	.461**	.423**	.557**	.228*	1							
6.교육심리세부역량 동기	.276**	.277**	.545**	.402**	.532**	1						
7.교육심리세부역량 수행	.445**	.428**	.462**	.293**	.672**	.478**	1					
8.교육심리세부역량 문제해결1	.491**	.410**	.441**	.100	.615**	.411**	.640**	1				
9.교육심리세부역량 문제해결2	.436**	.273**	.429**	.113	.611**	.459**	.517**	.746**	1			
10.교육심리세부역량 문제해결3	.440**	.467**	.444**	.225*	.599**	.502**	.579**	.718**	.550**	1		
11.교직 공통역량 전체	.705**	.726**	.677**	.613**	.627**	.553**	.605**	.547**	.477**	.587**	1	
12.교육심리 세부역량 전체	.529**	.476**	.592**	.282**	.822**	.694**	.814**	.861**	.800**	.829**	.70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1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교직 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각 하위요인들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p < .01$). 교직 공통역량의 하위 변인 중 수업능력은 교직 공통역량의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지식, 동기, 수행, 문제해결 역량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p < .01$). 교직 공통역량의 수업능력과 지속적 자기개발,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직 공통역량의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의 문제해결 능력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변인들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공통역량 전체는 교육심리 세부역량 전체 및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p < .01$). 그리고 교육심리 세부역량 전체 역시 교직공통역량 전체 및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p < .01$).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전체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r = .703$)가 있으나, 하위요인들 간에는 .276~.557 사이에 적절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원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대학교, 일반대학교의 교직과정과 일반대학교의 교육관련 전공에서 교육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을 함양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강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하고자 하여 한 학기의 수업을 실시한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교육심리학 수업은 예비교사와 교육학 관련 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학생들의 교직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직공통역량 즉, 수업능력,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지속적 자기개발,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즉 지식, 동기, 수행,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데 교육심리학 수업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공통역량에서 세 가지 유형 모두 수업능력,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에서 항상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교육심리학 수업을 통해 수업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수업계획서를 차시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교육학적 지식을 현장 수업에 적용할 수 있고, 개개인의 학생들의 학습 문제를 진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내용을 교수-학습모형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에 대한 자신감 또한 높아졌다. 즉, 교육심리학 수업을 통해 학습부진이나 장애의 의미를 구분하고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지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인지 및 정서발달에 관한 이론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기반으로 직업진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의 지속적 자기개발역량이나 교직품성 및 교직소양 역량에서의 통계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점수는 높아졌고, 교직공통역량 전체 점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식의 향상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ung et al.(2010)에서 강조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교육심리학 수업을 통해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심리학은 예비교사들의 교직공통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이므로 교직 수업을 맡았을 경우에 교수자는 수업에 목표에 적합하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교육심리 세부역량에서는 지식, 수행, 문제해결 역량에 항상 효과가 있었다. 하위요인 중에서 지식은 교육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학습자의 발달과 다양성에 대해 알고 있으며,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효과적인 학습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수업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과 효과적인 학급 운영에 대해 인지하는 역량이 교육심리학의 수업을 통해 향상된 것이다. 이는 Lee & Huh(2014)가 제안한 교사역할이나, Lee(2017)가 강조한 변화되어야 할 교사 역할과 연계하여 볼 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Lee & Lee(2018)에서는 대학생들의 미래창의융합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행 역량은 신문, 뉴스를 볼 때 교육심리학 이론을 적용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사건에 나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한국 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인데, 이러한 면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이론이 실제에 연계된다는 의미이므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Choi et al., 2014). 그리고 문제상황에 따라 이론적 근거를 동원하여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이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수강 유형 모두에서 교육심리학 수업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수강 유형에 관계없이 교육심리학은 수강 전과 수강 후에 교직역량에 있어서 향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서 향후 교육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교육심리학의 비중을 중시하고, 수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직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변인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므로 각 변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초중등 학교의 교사는 아닐지라도 교수자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심리학 관련 역량은 매우 필요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교육심리학 강좌를 교직이 아니라도 전공이나 교양으로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가질 수 있었다.

넷째, 교직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교직공통역량과 하위요인 중에 지속적 자기계발 요인이 교육심리 세부역량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통하여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계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Kim, 2009)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학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교육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며, 학문영역에 따라 목표로 하는 성취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 예로 Kim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교육대학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국제교류실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학교의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교육심리학 수업은 예비교사들의 교직 공통역량과 교육심리 세부역량 향상에 영향을 주므로 교육대학교, 일반대학의 교직과, 일반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심리학 수업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각 영역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ek, S. G., Ham, E. H., Lee, J. Y., Shin, H. J., & Yu, Y. L. (2007). A theoretical inquiry on the construct for teaching competence in secondary school. *Asian Journal of Education*, 8(1), 47-69. ☞ 국문: 백순근, 함은혜, 이재열, 신호정, 유예림(2007). 중등학교 교사의 교수역량 구성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8(1), 47-69.
- Bellanca, J., & Brandt, R. (2010). *21st century skills: Rethinking how students learn*. Solution Tree Press.
- Chang, U. H. (2002). Problems and improvement recommendations of curriculum for teacher education programs. *Educational Research*, 21(1), 65-79. ☞ 국문: 장언호(2002). 교사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논총*, 21(1), 65-79.
- Chizhik, E. W., & Chizhik, A. W. (2003). Making social justice within educational psychology relevant to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Education*, 14(3), 307-318. <https://doi.org/10.1080/1047621032000135203>
- Choi, S. D., Lee, S. E., Kim, D. I., Kim, J. C., Park, S. Y., & Hong, C. N. (2014). *A case study of the 2014 free semester research schoo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R 2014-47). ☞ 국문: 최상덕, 이상은, 김동일, 김재철, 박소영, 홍창남(2014). **2014년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CR 2014-47).
- Chung, E. I. (2009). Educational benefit of simulated teaching to prospective teachers: Focus on flow in teacher program and subject-related teacher efficacy. *Asian Journal of Education*, 10(3), 27-56. ☞ 국문: 정은이(2009). 교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의수업의 교육적 효과 : 교직과정 몰입과 교과관련 교사 효능감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3), 27-56.
- Chung, M. K., Kim, K. S., Ryoo, S. C., Kim, B. C., & Park, S. W. (2011).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demands for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refor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8(3), 287-306. ☞ 국문: 정미경, 김갑성, 류성창, 김병찬, 박상완(2011).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초, 중등 교원의 요구분석. *한국교원연구*, 28(3), 287-306.
- Chung, M. K., Kim, K. S., Ryoo, S. C., Kim, B. C., Park, S. W., & Mun, C. S. (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 training curriculum*.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R 2010-11). ☞ 국문: 정미경, 김갑성, 류성창, 김병찬, 박상완, 문찬수(2010).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 2010-11).

-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 training system: General standards for the quality and capacity of new teachers.* MOEHRD. ㉮ 국문: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원양성체제개선방안: 신규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기준.** 교육인적자원부.
- Han, M. H. (1997). The specialization of the curriculum for training secondary teachers: Focusing on the reasons of curriculum structur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5*(5), 171-194. ㉮ 국문: 한명희(1997). 중등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 교육과정 구조의 논거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5**(5), 171-194.
- Hwang, E. H., & Baek, S. G. (2008).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esults between self-reported evaluation and experts evaluation of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in secondary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1*(2), 53-74. ㉮ 국문: 황은희, 백순근(2008). 중등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의 비교연구. **교육평가연구, 21**(2), 53-74.
- Jacobs, R. L. (2002). *System theory applied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ory-to-practice Monography.
- Jin, K. Y. (2018). *Construct validity of the role and teaching competency of future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국문: 진경엽(2018). **미래교사의 역할 및 교수역량 구인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Jo, J. Y., Baek, S. K., Lim, J. Y., Yeo, T. C., & Choi, J. E.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s' aptitude and personality test tools.*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3-1). ㉮ 국문: 조주연, 백순근, 임진영, 여태철, 최지은 (2003). **교직적성·인성검사도구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1).
- Jung, J. H., & Kim, Y. C. (2005).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dilemmas of Korean first year elementary teacher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3*(2), 71-100. ㉮ 국문: 정정훈, 김영천(2005).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전문성 발달과 딜레마에 관한 사례 연구. **열린교육연구, 13**(2), 71-100.
- Kang, K. W., Park, Y. J., An, B. H., & Lee, K. H. (2006). *Introduction to education.* Kyoyookbook. ㉮ 국문: 강갑원, 박영진, 안병환, 이경희(2006).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Kang, S. J. (2004). A study on secondary school homeroom teachers' competenc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2*(2), 237-264. ㉮ 국문: 강석주(2004). 중등학교 담임 교사 역량 탐구: 일반계 고등학교 담임교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2**(4), 237-264.
- Ki, S. S. (2002). *Teacher theory.* Hakjisa. ㉮ 국문: 기순신(2002). **교사론.** 학지사.
- Kim, B. C. (2009).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process of pre-service teachers' journal

- writing in a teaching profession course.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1), 85-313. ㉞ 국문: 김병찬(2009). 교직과목 수업에서 저널쓰기의 의미탐색: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 수업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6(1), 285-313.
- Kim, J. C., Kim, J. S., Seo, J. H., Jung, W. H., Jung, J. C., & Kim, S. Y. (1994). *The latest teacher theory*. Kyoyookbook. ㉞ 국문: 김종철, 김종서, 서정화, 정우현, 정재철, 김선양 (1994). **최근 교사론**. 교육과학사.
- Kim, J. H., & Lee, K. Y. (2006). Investigation of the earth scien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their improvement plans.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27(4), 390-400. ㉞ 국문: 김중희, 이기영(2006). 사범대학 지구과학 교사 양성 교육 과정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탐색. **한국지구과학회지**, 27(4), 390-400.
- Kim, J. S. (2010). Unite research and practice in educational psychology: Through collaboration with school psycholog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1), 235-253. ㉞ 국문: 김정섭(2010). 교육심리학 연구와 실천의 만남. **교육심리연구**, 24(1), 235-253.
- Kim, J. W., & Lee, Y. H. (2009). The development of teaching competencies and performance standards for community college facult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1(1), 111-138. ㉞ 국문: 김종우, 이용환(2009). 전문 대학 교수의 교수능력과 수행기준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1), 111-138.
- Kim, J. W., Kim, K. S., Jung, M. G., & Hong, I. G. (2012). *A Study on the future teacher education system*.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RR 2012-03). ㉞ 국문: 김정원, 김기수, 정미경, 홍인기(2012). **미래형 교사교육체계 구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 2012-03).
- Kim, J. W., Park, S. Y., Kim, K. S., & Jung, M. G. (2011). *A study on the competency enhancement plans for teachers' life stages*.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RR 2011-06). ㉞ 국문: 김정원, 박소영, 김기수, 정미경(2011).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 2011-06).
- Kim, Y. J.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f education paradig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Korea Contents Society*, 18(9), 248-259. ㉞ 국문: 김은진(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범대학 예비교사의 교육패러다임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9), 248-259. <http://dx.doi.org/10.5392/JKCA.2018.18.09.248>
- Kim, Y. O., Yun, S. Y., Sol, Y. H. (2020). An exploratory stud on the feasibility of on-line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of Korean education universities. *Global Creative*

-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2)*, 133-160. <http://dx.doi.org/10.34226/gcl.2020.10.2.133>
☞ 국문: 김윤옥, 윤소영, 설양환(2020). 국내 교육대학교들의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실행 가능성 탐색.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2)**, 133-160.
- Lee, B. W., & Huh, S. (2014). *Teacher and teacher life: The theory of education and the field practice*. Knowledge and Sensibility. ☞ 국문: 이범웅, 허숙(2014). **교사와 교직 생활: 교육 이론과 현장 실제의 만남**. 지식과감성.
- Lee, K. H. (2015). *Teaching competency test*.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Teaching. ☞ 국문: 이경화(2015). **교직역량검사**. 숭실대학교 교직과.
- Lee, K. H. (2017). *What should future school teachers do? The Korea Future Education Report*. Gwangmungak. ☞ 국문: 이경화(2017). **미래학교 교사는 어떠해야 할까?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광문각.
- Lee, K. H., & Lee, K. H. (2018). The effect of creativity convergence competency and creative leadership on self-directed learning.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2)*, 44-60. <https://doi.org/10.34226/gcl.2018.8.2.44> ☞ 국문: 이가형, 이경화 (2018). 창의융합역량, 창의적리더십이 자기주도학습력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2)**, 44-60.
- Lee, S. Y., Kim, S. S., & Choi, D. B.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teacher competence and K-CESA core competence of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ssential Skills Education conference, 2*, 251-274. ☞ 국문: 이수영, 김성식, 최단비(2015). 초등 예비교사의 창의적 교사역량과 K-CESA 핵심역량과의 관계.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 251-274.
-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un, E. K. (2015). *Needs analysis on teaching competency of professors and pre-service professors in higher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국문: 문은경(2015). **고등교육 교수역량에 대한 교수자와 예비교수자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Park, J. I., & Cho, H. S. (2005). A study on preliminary teachers' perception of the teacher training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4(2)*, 73-91. ☞ 국문: 박제일, 조희성(2005). 예비교사들의 교직과목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한국교육포럼, 4(2)**, 73-91.
- Park, J. S. (2005). A study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 *Life guidance research, 24*, 189-208. ☞ 국문: 박주성(2005).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과목 만족도 조사. **생활지도연구, 24**, 189-208.

- Park, Y. S. (1999). *A study on the job development of teachers based on the competenc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RR 99-21). ☞ 국문: 박영숙(1999). **능력중심의 교사 직무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 99-21).
- Park, Y. S. (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 qualification standards at the national level*.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RR 2007-07). ☞ 국문: 박영숙 (2007). **국가 수준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 2007-07).
- Poulou, M. (2005). Educational psychology within teacher education. *Teacher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1(6), 555-574. <https://doi.org/10.1080/13450600500293241>
- Roh, H. I., & Choi, M. N. (2004). The development of the teaching competency model for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2), 1-28. ☞ 국문: 노혜란, 최미나(2004).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수역량 모델 개발. **직업능력개발연구**, 7(2), 1-28.
- Shin, J. H., Park, S. W., & Choi, J. H. (2011). Current state and future tasks of educational psychology for more effective teacher train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3), 417-429. ☞ 국문: 신종호, 박수원, 최재희(2011). 교직 과목 교육심리학의 운영 현황과 과제. **교육심리연구**, 25(3), 417-429.
- Snowman, J. (1997). Educational psychology: What do we teach, what should we teach?.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2), 151-170.
- Snowman, J., McCown, R., & Biehler, R. (2009). *Psychology applied to teaching* (12th). Houghton Mifflin.
-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y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Inc.
- Wittrock, M. C. (1992). An empowering conception of educational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ist*, 27(2), 129-141. https://doi.org/10.1207/s15326985ep2702_1
- Yoon, J. I., & Shin, H. J. (2006). A study on the perspectives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concerning teacher expertise.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3(2), 79-100. ☞ 국문: 윤정일, 신호정(2006). 교사 전문성에 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3(2), 79-100.